

치아 교정 필요성 체크 6~7세, 교정치료는 12~14세 이후

건강 바로 알기 교정치료

정서린 조선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 교수

가치있는 치아와 환한 미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 중 하나다. 예전에 비해 교정치료가 상당히 보편화됨에 따라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들도 지금이라도 교정치료를 받아볼까 고민하며 진료실을 찾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교정치료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교정치료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경우인데 늦지 않은 시기에 검진을 받으므로 미리 각자에게 필요한 치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니가 영구치로 교환되는 시기에 치아 발육 상황 점검
성인 때 치료하면 치아이동 느낄 수 있지만 장점도 많아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권장하는 교정의 사 방문할 시기는 6-7세 경으로, 앞니가 영구치로 교환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검진을 받게 되면 치아의 발육 상황을 점검해볼 수 있고 치아들이 맹출할 공간의 부족이나 경로 이상, 악골 관계의 이상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위턱과 아래턱의 성장 부조화가 심하여 성장 조절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보다 빠른 시기에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골격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초기에 검사함으로써 치아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치열의 발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습관 등을 조절할 수 있어 좋다.

골격적인 부조화가 적거나 없는 경우 치열 전체에 고정성 교정치료를 하는 시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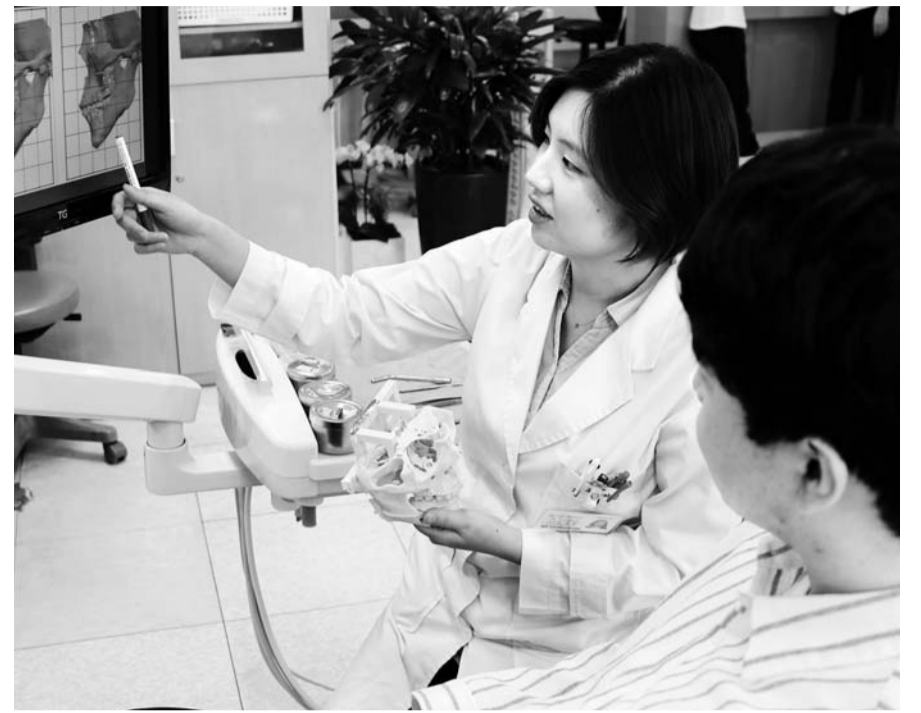
대개 모든 영구치가 맹출한 12-14세 이후이면 크게 문제없다. 성장중인 경우에는 잇몸 등의 반응이 양호하여 치료기간이 성인보다 짧고 불편감도 적으며, 치료 후 생길 수 있는 잇몸 퇴축도 덜한 편이다. 그러나 환자가 구강건강에 관심이 덜할 때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구강위생 관리에 소홀할 수 있어 치아우식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시기의 환자와 보호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성인의 경우 치아이동은 성장중인 아동보다 약간 느낄 수 있지만 본인의 의사로 치료를 시작했고, 관심이 많기에 위생관리를 잘 할 수 있으므로 장단점이 있다.

교정치료의 시작뿐만 아니라 종료 후 유지도 중요하다. 교정치료가 끝나면 고정성 유지장치 또는 가철성 유지장치를 장착하

게 되는데, 이는 치료 종료 후 치아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고 치료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니의 안쪽 면에 부착되는 고정성 유지장치는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먹으면 탈락하기 쉬우며, 주의가 요구된다. 가철성 유지장치는 보통 1-2년 정도 장착하며, 일정기간 동안에는 하루 중 오랜 시간 장착할수록 유지효과가 좋다.

교정치료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의 하나로 치아가 이동할 수 있는데, 고정성 유지장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면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교정치료에 대해 고민 중이라면 각각의 경우에 따라 치료방법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방법과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교정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리=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치과병원 정서린 교수가 교정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선대치과병원 제공)



2019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리더스 워크숍

일시 : 2019. 5. 24(금) 13:00 ~ 5. 25(토) 12:00, 1박 2일 장소 : 보성대비즈니스호텔(화순)

화순전남대병원 '아시아 대표 암특화병원' 의료역량 강화 다짐

100여명 참가 '리더스 워크숍'
진료·행정부서 소통 강화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정진)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암특화병원'으로서 차별화된 의료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단 결의를 다졌다.

병원측은 지난 24-25일 보성 다비치 콘도에서 '2019 리더스 워크숍'을 열었다. (사진) 이번 워크숍에는 28개 진료과의 부서장과 수간호사, 진료·행정부서 팀장급 이상 관리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해 미래 청사진에 관해 부서별 발전전략

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제2의 도약'을 위해 더욱 혁신적인 노력을 더해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리브랜딩(re-branding)'의 주요 성과들을 부서별로 중간점검하고, 보다 개선된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환자별 맞춤치료를 위한 정밀의학 선도, 다학제 진료 강화, 암면역치료 특화, 암평생건강클리닉 활성화 등 차별화 전략과 진료 프로세스 개선, 협력병원과의 네트워크 증진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

다고 자체 평가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등 글로벌 도약을 향한 청신호도 기대요인으로 평가됐다.

올해는 보다 질 높은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초진환자 접근을 향상,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추가운영, 암환자들의 심신불편 해소를 위한 디스트레스 클리닉 운영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모바일 앱 구축, 빅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서비스와 외래-병동 전자계산판 운영, 디지털 역사 홍보존 개설, 각종 고객 편의시설 확대 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건강강좌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분부장 김병길)는 최근 청사 내 지하 1층 메디체크홀에서 '건강검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주제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무료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사진) 건강증진과 김영란 팀장이 평소 건강검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궁금증, 검진 전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매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강좌를 실시하며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와 함께 건협 광주전남지부는 광주 벨엘교회 벨엘늘푸른대학에 참가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캠페인을 실



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혈압검사, 혈당검사, 상담을 진행했으며, 약 70여명의 어르신들이 캠페인에 참석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남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어린이 편식교정 교육 실시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위탁운영하는 광주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정미자 교수)가 최근 광주 남구청 회의실에서 어린이 편식교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남구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세 살 편식 여든까지 간다'라는 주제로 어린이 편식 실태와 심각성, 편식 예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센터장인 정미자 교수는 "어린이들의 편식 개선과 건강을 위한 균형 잡힌 식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



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제일오피스텔, 사무실 전용

-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23-2번지 (구, 수기동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20층, 77평, 최상층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전망 좋음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즉시입주가
- 보3천만원에 월110만원에 임대가능
- 건설회사, 보험회사등 사무실 적합
- 시세/감정가 - 4억
- 급매 - 3억30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조정가)

문의. 010-6834-7400